

“도시 전체가 거대한 식탁”...순천시 미식주간 열린다

20-27일까지 원도심 등 곳곳 개최 음식·문화 결합 오감만족 미식여행 스타 셰프 최현석 ‘쿠킹 토크쇼’도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시가 지역의 정성 식재료와 고품격 예술 콘텐츠를 결합한 특별한 여름 미식 축제를 선보이며 전국 미식가들의 발길을 유혹한다.

2일 순천시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시 전역에서 ‘맛과 예술이 만나다’라는 슬로건 아래 ‘2026 순천미식주간’을 대대적으로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단순한 먹거리 행사를 넘어 순천의 다채로운 음식 자원과 문화 예술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지는 오감 만족 미식 여행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축제의 화려한 서막은 20일과 21일 이틀간 원도심인 남문터광장에서 열리는 현장 행사로 연다.

특히 올해는 지역 예술인들의 축제인 ‘정원에 술제’와 연계해 시너지를 극대화했다.

광장 곳곳에는 순천의 맛을 즐길 수 있는 미식마켓과 체험 부스가 차려지며,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 프로그램이 더해져 남문터광장 일대가 맛

과 멋이 흐르는 거대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현장에서는 로컬 셰프 토크쇼, 순천 맛집 인증식, 인생샷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 등도 다채롭게 운영된다.

가장 기대를 모으는 핵심 프로그램은 스타 셰프 최현석이 출격하는 ‘쿠킹 토크쇼’로, 대중에게 친숙한 최 셰프는 순천에서 나온 자란 신선한 로컬 식재료와 지역 우수 기업의 제품을 활용해 자신만의 감각적인 요리를 무대 위에서 직접 선보인다.

지역 자원이 셰프의 손길을 거쳐 매력적인 미식으로 탄생하는 이른바 ‘상생형 미식 무대’는

관객들에게는 현장에서 완성된 특급 요리를 직접 맛볼 수 있는 시식 기회도 제공돼 잊지 못할 미식 경험을 선사할 전망이다.

현장 행사가 끝난 뒤인 22일부터 27일까지는 미식주간이 무대가 순천 전역으로 폭넓게 확장된다.

전통시장과 지역의 특색 있는 공간을 잇는 ‘미식 투어’를 비롯해 조선시대 정취를 간직한 낙안읍성 특화 미식 프로그램, 맑은 자연 속을 걸으며 미각을 깨우는 ‘치유미식 트레일런’ 등 공간과 이야기가 결합된 심도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들이 줄지어 방문객을 맞이한다.

시는 이번 2026 미식주간을 기점으로 장기적

인 원도심 및 지역 골목 상권의 활력을 견인하고, 순천만의 독보적인 음식 자원을 강력한 문화·관광 콘텐츠로 확장해 ‘대한민국 대표 미식 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확고히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2026 순천미식주간은 순천의 깊은 맛에 예술적 감성과 지역사회의 역량을 더해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식탁이자 축제 무대가 되는 뜻깊은 행사”라며 “최현석 셰프의 쿠킹 토크쇼 등 풍성하게 마련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순천의 여름을 가장 맛있게 특별하게 기억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순천=곽동현 기자



고흥군은 최근 전국에서 모인 40여명의 참가자와 함께 올해 첫 볼런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사진은 참가자 기념촬영 모습. (고흥군 제공)

고흥군, 자원봉사·여행 결합 ‘볼런투어’ 호응

참가자 일손 돕기·드론쇼 관람 체험 농가 인력난 해소·지역 상권 활성화

고흥군이 자원봉사(Volunteer)와 여행(Tour)을 결합한 이색 체험형 프로그램인 ‘볼런투어’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관계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2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전국에서 모인 40여명의 참가자와 함께 올해 첫 볼런투어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흥군 고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인 ‘소록도의 천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나눔과 추억의 공간조성’에 10만원을 기부한

신규 가입자들을 초청해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1박2일 중 첫날 고흥군의 선진 농업 기반인 스마트팜을 찾아 방울토마토 수확과 잎사귀 자르기 등 일손 돕기에 구슬땀을 흘리며 농가의 인력난 해소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일과를 마친 저녁에는 화려한 녹동함 드론쇼를 관람하며 고흥만의 특별한 야간 관광을 만끽했다.

이튿날에는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나눔연수원을 방문해 두 간호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강연을 듣고, 소록도 해안가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며 참된 봉사의 의미를 실천했다.

이어 고흥전통시장과 로컬푸드 직매장을 들

리 신선한 지역 농수산물들을 직접 구매하며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시간도 가졌다.

볼런투어에 참여한 한 방문객은 “여행의 즐거움과 봉사의 보람, 그리고 기부자로서의 자부심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뜻깊고 짜릿한 일정이었다”며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고흥군은 이번 첫 행사를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총 10회에 걸쳐 볼런투어를 운영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기부와 봉사, 그리고 지역 내 착한 소비로 이어지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를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체험형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확대해 ‘자원봉사의 성지’ 고흥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장흥소방, 유관기관 합동 긴급구조 종합훈련

장흥소방서는 “최근 부산면 소재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센터에서 ‘2026년 긴급구조종합훈련 및 다수사상자 구급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훈련은 극한 호우로 인한 산사태와 건물 붕괴,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복합재난 발생 시 기관별 역할 수행 능력과 협업체계를 점검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 경찰, 지자체, 군부대, 의료기관 등 11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훈련에는 인원 233명과 차량·장비 34대가 동원됐다.

각 기관은 재난 상황 전파를 시작으로 긴급구조 지휘대 운영,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다수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이송, 긴급복구 활동 등 실제 재난 상황을 대비한 대응절차를 훈련했다. <사진>

문병은 소방서장은 “이번 훈련은 기관 간 상황 공유와 현장 임무 수행을 통해 실제 재난 발생에 대비한 대응태세를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긴급구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여수도시관리공단, 30일까지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 공모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은 2일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자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시민과 고객을 대상으로 ‘2027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제안 사업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대상은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물을 이용하면서 느꼈던 불편 사항을 개선하거나, 전반적인 시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다.

공단의 발전과 서비스 향상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공단 누리집과 안내 포스터에 삽입된 QR코드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공단 본부 및 각 시설물 안내데스크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편한 방식을 선택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시민 제안은 해당 부서의 실무 검토와 주민참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채택된 사업은 공단의 2027년 본예산에 정식으로 반영돼 적극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송병구 이사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공단 운영에 직접적이고 투명하게 반영할 수 있는 핵심제도”라며 “지역 사회 발전과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장성군, 폭염 대비 어르신 건강·안전 보호망 가동

일자리 시간 단축·생활지원사 파견 등

장성군은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를 앞두고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촘촘한 보호 대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2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달 경로당 36곳과 노인활용시설 2곳에 냉장고를 지원하고, 경로당 7곳의 노후 에어컨을 전면 교체하며 선제적인 폭염 대비를 마쳤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이달부터 8월까지 폭염특보 기간에는 어르신들의 운영질한 예방을 위해 노인일자리사업 활동 시간을 기존 30시간에서 15시간으로 대폭 단축해 탄력 운영한다.

또한 폭염 취약 시간대인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는 마을 방송을 활용해 야외 활동 자제를

적극 홍보하고, 지역 무더위쉼터를 야간에도 개방한다.

특히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 노인맞춤돌봄가구는 특보 발효 시 전담 생활지원사가 매일 1회 이상 직접 안전을 확인한다.

아울러 올해 신설된 ‘폭염중대경보(계감온도 38도 이상 등)’가 발효될 경우, 하루 2회 이상 안부를 확인해 한층 강화된 밀착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심우정 장성군수 권한대행은 “폭염으로 인한 어르신들의 인명 피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8월까지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행정력을 쏟을 것”이라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무더위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구례군, 2026년 지적재조사 4개 지구 지정

봉동3지구 등 道 심의 통과

구례군은 “최근 전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례군 내 4개 지구가 2026년 사업 대상으로 최종 지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구례읍 독자지구(406필지), 봉동3지구(1천46필지), 봉서2지구(672필지), 신월(원봉2)지구(1천159필지) 등 총 3천282필지(146ha) 규모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부정확한 종이 지적을 첨단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토지의 불분명함을 바로잡는 국책사업이다.

측량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군은 앞서 지난해 12월 주민설명회를 열고 토지 소유자 총

수 및 면적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충족해 전남도에 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군은 사업 책임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함께 일일지 측량 조사에 돌입하며, 이후 경계 결정 및 이의신청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까지 새로운 지적 경계 확정을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윤길 종합민원실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낡은 종이 지적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해 땅의 가치를 높이는 필수 사업”이라며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재산권을 획기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구례=김세중 기자



담양영재교육원, 대자연 융합 체험 ‘제주 캠프’ 성료

중등 1학년 16명...자연·인문 탐방

담양영재교육원이 지역 영재 학생을 대상으로 교실 밖 대자연에서 과학과 인문학을 아우르는 특별한 체험학습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2일 담양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담양영재교육원은 최근 3박4일간 제주도 일원에서 자연영역 중등 1학년 학생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학년도 제주 체험학습’을 운영했다. <사진>

이번 체험학습은 영재교육원 학생들에게 교실을 벗어난 심화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제주의 독특한 자연과학 생태환경과 인문·역사 자원을 직접 살펴봄으로써 탐구 능력과 진로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단순히 자연 풍경을 관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실에서 배운 과학 및 수학적 지식을 제주만의 생태·환경과 직접 연결해 보는 융합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특히 첨단 기술 탐방은 물론 인문·역사 탐방까지 결합된 다채로운 일정을 소화하며, 다방면의 폭넓은 시각을 기르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조선희 교육지원과장은 “교과서에서만 보던 제주의 대자연과 첨단 과학, 역사의 현장을 학생들이 직접 융합해 보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사전·사후 연계 지도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창의적인 융합형 인재로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